

대행 스님

내 상황에 따라 용도에 따라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가는 것이 법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지만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집을 비워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꺼내 먹고 자기네들이 그냥 놀러 나가고 자기네들이 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는 자기대로 나가서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나가더라도 글씨를 좀 큼직하게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 놓아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아무개 아무개야, 너희들 사랑해! 여기다 너희들 좋아하는 것 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꺼내 먹어.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줘. 참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너희들도 협조해 줘." 하고 써서 거기다 뽀뽀도 좀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해서 절대로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끄달리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하고 화목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겉으로만, 돈만 주고 음식만 잘해 주면 그 모두가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모두가 화목해지고 엄마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고 부르고 야단법석이 나고 아주 착실해지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한 분들은 다들 되찾았어요. 갈라섰던 자손들하고도, 부모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부부 사이에 갈라졌던 분들이 다 화목하게 사랑을 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미묘한지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바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까닭에 불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고 또 공양물을 공양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해 놓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양을 할 때도 '왜 공양이라고 했을까?' 하고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는 것이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양이라고 합니다. 참 미묘한 공양입니다.

그래서 꽃을 공양할 때도 꽃공양이라고 하죠. 이건 일체 만물만생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촛불을 켜는 거는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밝게 돌아가고 있다, 여여하게 그냥 밝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말입니다. '밝은 마음을, 부처님과 내 마음과 둘 아닌 공양을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잘못하고 잘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 바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몇 번째 했습니다만, 내가 예전에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내 자생 부(父)가 하는 소립니다. '이거는 자식의 묘고 이거는 애비의 묘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가 부한테 가면 부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까닭인고?' 하고 묻더라 이겁니다. 난 그때 시절에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을 못 잡을 때에는 거기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말려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해결을 못 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일을 할 때는 그냥 자로 하나가 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천수만으로도 모습을 바꿔서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부로 하나가 되고 일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돼서 자와 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항상 둘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겁니다. 그러니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가 돼서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 아주 가깝게, 아버지는 아들과 둘이 아니다. 일을 할 때는 한 아들이 돼 버리고 일을 안 할 때는 한 부가 돼 버리니 이 미묘한 법은 바로 말로는 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법당에 가서 칠정례를 하든 팔정례를 하든 백팔 배를 하든 삼천 배를 하든 하시지만 그거는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거죠.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집에 불도 꺼 놓지 않고 왔는데, 불을 꺼 놓든 안 꺼 놓든 뭐, 집이 타든 말든 하던 백팔 배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칠정례를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하고, 내가 여유가 없고 아주 급박할 때는 삼정례를 일정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현재심 하나로 오고, 바로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니까요. 현실도 바로 공했으며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고정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듣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먹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과 같이 둘이 아니요, 법당에 가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근본 자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 한 개비 켜 놓는 것도 아름답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착한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향입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아까도 노래를 했죠?

그러니 여러분이 법당에 가서도 항상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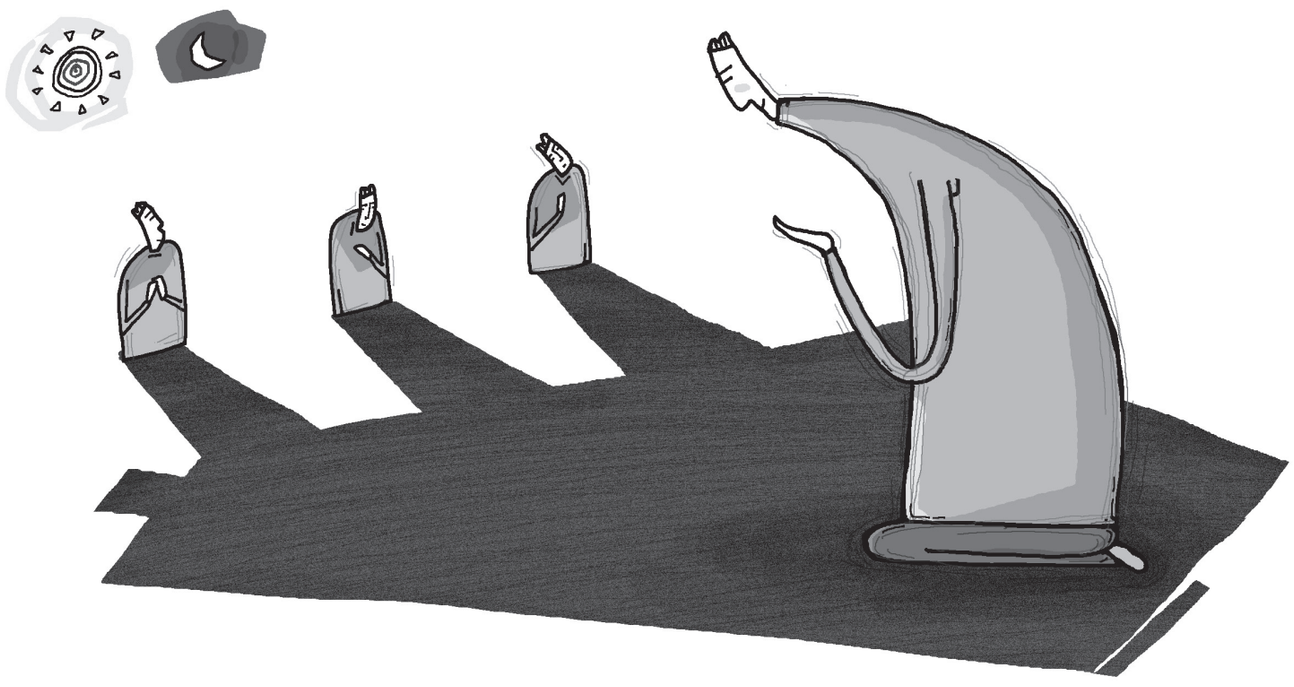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